

엄격한 단속 · 지속적 치료 마약확산 막는 방어벽이다

권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9대 이사 ·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장

우리나라 마약퇴치운동은 약사의 재능기부가 있어 가능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1992년 보건사회부의 방침에 따라 대한약사회를 모체로 발족할 때부터 약사의 역할이 컸다. 약물오남용 예방, 마약중독에 의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 등과 관련된 활동이 약사의 업무와 밀접했다. 또 매년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해 약사가 마그미 강사로 활동하며 약사회가 마약류 퇴치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약’은 다른 직군보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다뤄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던 권경희 동국대학교 약대 교수가 지난 7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9대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로 선임됐다. 권 교수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와 교육 업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작용심의위원회 위원, 총리실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마약중독자, 범법자이기보다 환자로서 치료가 우선

권 교수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종 유사마약류를 비롯한 불법마약의 유통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독자 본인의 문제에 국한된다면 모르지만 사회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들을 범법자로 보기 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 또한 일반인이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마약류 관련 사범의 확산과 재범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단체의 엄격한 단속과 치료가 우선

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UN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고 있다. 때문에 중독이 된 사람을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마약류 불법유통을 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 마약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사례를 참고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정책, 근거 중심 정책수립 및 예방활동 해야

제9대 이사로 선임되면서 본부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오남용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마약청정국의 위치를 위협받는 이때 국민의 마약류 오 · 남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근거중심의 정책수립 및 예방 활동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최근 신종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마약류의 유혹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마약류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이 생활체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다양한 교과 외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 교수는 2010년 신설된 동국대학 약대 교수로 초빙돼 지난해 약대학장을 맡아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학생에게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약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특히 약사 윤리 및 보건 의약관계 법규 과목과 약과 사회 수업을 통해, 마약류와 관련된 제도,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의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6

마약청정국의 위치를 위협받는 이
때 국민의 마약류 오·남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근거중심의
정책수립 및 예방 활동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됐다

9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석사
미국 필라델피아약대 박사
(사회약학전공, Pharmacy Administration)
前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現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학대학장
現 (사) 한국FDC법제학회 부회장
現 (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법규분과회장
現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부회장
現 (사) 대한약학회 홍보위원장
現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감사, 제도정책분과 이사